

우리 자동차 업계, 생산현장이 위험하다!

우리 근로자들은 ‘유독성 기름’을 마시고 있다

자동차부품 생산현장을 비롯한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소모성 유류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금속의 절삭 및 연삭 가공 시 윤활작용을 하는 절삭유, 연삭유 등의 금속가공유에서부터 제품의 녹 방지를 위한 방청유와 세척을 위한 세척제에 이르기까지 윤활 목적과 대상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유류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류들은 작업 시에 분사하거나 미세한 입자로 살포해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기름입자인 오일미스트(Oil Mist)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환기장치를 갖추고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해도 일부는 피부로 흡수되거나 코와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된다.

소모성 유류가 인체에 무해해야 하며 친환경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장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유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협력사에 납품받는 대다수 유류가 환경호르몬, 유독성 발암물질이다

모 단체가 2010년 ~ 2011년 2년 동안 87개 사업장의 1만 2,925개 유류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7.7%인 6,178개 제품이 발암성 물질을 함유한 위험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유해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제품들이 유독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독 발암물질에는 니트로소아민, 디핵방향족탄화수소, 염화파라핀, 포름알데히드, 알킬페놀, 아질산나트륨 등이 있다.

상기의 발암성이 상당히 강한 독성 물질들은 유럽 등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2007년 KS규격 재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알킬페놀은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우리 몸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에 교란 작용을 일으켜 호르몬의 생성 및 조절을 방해하게 된다.

포름알데히드는 눈, 코, 목 등에 자극증상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 될 경우 천식 발작, 경련, 의식불명 상태 및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

르게 하는 유독한 물질이다. 동물 실험 결과 발암성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는 협력사 현장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에서 시행하는 ‘소모성유류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자동차 부품협력사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 자동차업계가 위협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에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많은 자동차부품협력사에 납품되고 있는 방청유, 세척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

과, 대다수의 부품협력사가 유독성물질을 함유한 방청유, 세척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2년 7월 16일부터 친환경은 물론, 품질 또한 뛰어난 방청유 및 세척제를 적극 권장 및 제공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전 협력사들에게 친환경 유류는 물론 유류 비용지원과 협력사근로자 건강까지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협력사들에 납품된 방청유 및 세척제의 유독성물질 검출 관련사항은 추후 자료 수집을 보완하여 신문매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체에 해가없는 친환경 방청유, 세척제 공급과 구매 지원금까지..

앞으로는 친환경 시대이다. 전 세계가 ‘그린(GREEN)’을 모토로 하고 있는 현 시대에 원가 절감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건강을 배제한 친환경을 지언한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원가절감을 위해서 당 연구소에서 지원금을 공급하며,

협력사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친환경 유류(방청유, 세척제)를 권장 및 연결,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발전은 물론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당 연구소의 행보에 협력사실무 담당진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바라는 바이다.

Contents

- ◆ 국산 NGV기술 인도네시아로 진출한다.
- ◆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수 2.74명당 1대
- ◆ 한국타이어, 여름 휴가철 타이어 무상점검 실시
- ◆ 현대차, 신형 그랜저 · i30 ‘복미 올해의 차’ 2연패 도전

2면

- ◆ 〈신차〉 현대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 ◆ 〈자동차 역사〉 현대자동차 ‘그라나다’
- ◆ 〈자동차 상식〉 자동차 전조등 켜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 자동차 이제 렌트가 아닌 세어링 시대
- ◆ 자동차 렌트시 자기차량손해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3면

- ◆ 北, 김정은 ‘원수’ 추대
- ◆ 성범죄자, 그들이 사는 집 앞에 신상공개 팻말을..
- ◆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자세히 보기
- ◆ 〈정치 HOT〉 안철수, ‘안철수의 생각’ 출간. 대선출마 수순 밝나

4면

- ◆ 시중은행 ‘CD금리 조작’ 의혹
- ◆ 주택에 이어 상업용 빌딩도 ‘불황’
- ◆ 韓 자동차 부품사, 日 수출 물류비 준다
- ◆ 개인 신용등급, 평가사마다 다르니 주의
- ◆ 매일 쓰는 공산품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5면

- ◆ 〈건강상식〉 여름 건강을 지키는 옷차림
- ◆ 〈스포츠이야기〉 4전 5기의 신화
- ◆ 〈생활상식〉 여름 불청객 모기, 이젠 자연의 힘으로 퇴치하자!
- ◆ 〈지식백과〉 달고 쓴 인류 최대의 음료수, 커피(Coffee)

6면

- ◆ 〈여행〉 천혜의 해상공원, 선유도
- ◆ 〈축제〉 한여름밤 빛의 향연 ‘포항국제불빛축제’
- ◆ 〈지식백과〉 암컷이었다가 수컷이었다가
- ◆ 〈영화〉 다크나이트라이즈

7면

협력사 지원사업 설문조사!



○ 금번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및 한국자동차신문(KMN)에서는 협력사의 자동차부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 세척 관련 소모성유류 지원사업 및 생산 · 시험측정 설비 검교정검사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의처〉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또는 한국자동차신문(KMN) 조사 · 편집국

전화 : 1566-9901(전국번호) 팩스 : 1566-8121(전국번호)

http://www.kmir.org E-mail : kmir@kmir.org

시행처 :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한국자동차신문(KMN)

○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 자동차부품협력사 8,500여 곳 중 일부 선정 및 기간을 나눠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조사목적 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귀사의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당 연구소 이외의 누출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 전문적인 연구와 든든한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본 연구소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순수 비영리 기관입니다.

소모성 유류 구매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협력사
2. 지원품목 : 방청유, 세척제
3. 지원규모 : 최대 3억원까지 현금지원

검교정 검사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협력사
2. 지원품목 : 생산 및 시험측정장비 검교정검사 비용
3. 지원규모 : 연간 검교정검사비용 1,000만원 한도 내 40% 현금지원

Tel.1566-9901(안내) Fax. 1566-8121 E-mail : kmir@kmir.org Homepage : www.kmir.org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
Korea Motor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

2003. 11 현대, 기아자동차그룹,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및 관계기관(정부기관)등의 협조로 설립.
계열 한국자동차신문사(KMN)설립
2011.08. 계열 비영리, 한국자동차신문사(KMN) 설립.
2012.05.15. 한국자동차신문(KMN) 창간.

“Welcome to KMIR”

자동차부품협력사 지원(비영리)기관



국산 NGV기술 인도네시아로 진출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천연가스자동차(NGV) 보급정책 및 기술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해 국산 NGV산업의 해외진출에 힘을 실었다.

환경부와 천연가스차량협회(회장직무대행 배영태)는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NGV포럼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회의(브루나이, 2006)에서 NGV 보급 정책 및 기술협력사업이 경제협력 부속사업으로 채택된 이후 2008년부터 아세안 정부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한국의 성공적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여러 국가의 경험 전수 요청에 따라 중앙아시아, 남미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번 NGV 포럼에는 양국 정부의 천연가스자동차 정책 담당자와 가

스공사, 개조사, 용기사, 가스충전시설 관련 기업인 100여명이 참가해 보급 정책, 산업, 기술 등에 대한 사례발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NGV 관련 검사·인증기관 및 CNG충전소, 국영개조사, 용기제조사 등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기관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NGV 기술수준 및 시장성을 파악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별 1:1 비즈니스 협의를 통한 협력사 발굴과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도시 대기오염개선 및 자동차연료 다원화를 목적으로 유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대중교통 25만대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연료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올해 공공부문에서 1만4000대의 가스차량 개조 키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 250만대의 차량과 관련 충전설비의 증설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연가스차량협회는 인도네시아천연가스차량협회(APCNGI)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CNG 정책과 업계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 회원사 및 관계 기관간의 원활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천연가스차량협회는 이번 NGV 포럼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및 관련업체와 유익적인 협력 채널 구축으로 우리나라 NGV 산업의 해외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도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수 2.74명당 1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인구 2.4명당 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밝혔다.

상반기 등록대수는 작년 말보다 22만4천대 늘어나며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증가율은 2.8%였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4만2천대 감소, 계산상 자동차 2.74명당 1대를 보유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천436만대로 전체의 77.0%를 차지했고 화물차 323만9천대(17.4%), 승합차 100만1천대(5.4%) 등으로 뒤

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1천755만8천대(94.1%), 영업용 103만4천대(5.5%), 관용 7만대(0.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5만대(23.3%)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7만4천대(15.9%), 경남 146만2천대(7.8%) 등이다. 전체의 44.7%에 이르는 833만7천대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셈이다.

연료별로는 휘발유차 923만5천대(49.5%), 경유차 684만4천대(36.7%), LPG차 243만대(13.0%) 순이다.

중형차가 57.2%인 820만7천대였고 대형차 363만3천대(25.3%), 경차 134만대(9.3%), 소형차 117만9천대(8.2%) 등이다.

6월 말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5만4천139대 등록, 월 평균 2천683대가 늘어났다.

김명호 기자

한국타이어, 여름 휴가철 타이어 무상점검 실시



실제로 여름에는 젖은 도로와 마른 도로를 자주 번갈아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낮과 밤의 기온차로 타이어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돼 공기가 쉽게 빠져 나갈 수 있어 어느 계절보다도 타이어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마모가 심한 타이어로 젖은 노면을 주행할 경우 수막현상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손상된 타이어로 뜨거운 도로를 장시간 주행할 경우에도 공기 팽창으로 인한 타이어 파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타이어는 행사 기간 동안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점검, 스핀너 및 타이어 위치 교환 등 휴가철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타이어 서비스를 비롯해 평소 올바른 타이어 선택과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타이어 한국지역본부장 박철구 부사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여행에 앞서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사는 행사로 성원에 보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상수 기자

현대차, 신형 그랜저 · i30 ‘북미 올해의 차’ 2연패 도전



현대자동차가 최근 북미시장에 투입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형 그랜저(아제라)와 i30로 북미 올해의 차 2연패에 도전한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와 북미국제오토쇼 조직위원회는 23일, 2013 북미 올해의 차 1차 후보에 노미네이트된 30개 차종을 발표했다. 2013 올해의 차에는 예년과 달리 일본 신차가 절반에 가까운 13대가 포함돼 일본차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다.

북미 올해의 차는 올해 20번째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50여명의 저널리스트들이 지난 1년간 북미에서 시판, 또는 데뷔 예정인 신형모델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3 북미 올해의 차에 한국산 신차는 현대 신형 아제라(신형 그랜저)와 엘란트라GT(신형 i30), 한국지엠이 수출하고 있는 쉼보레 스

파크가 각각 1차 후보에 올랐다.

이 외에 혼다차의여류라 ILX, BMW 신형 3시리즈 및 BMW 6시리즈 그란쿠페, 캐딜락 ATS, 캐딜락 XTS, 쉼보레 신형 말리부, 닛자 다트, 포드 신형 퓨전, 포커스 일렉트릭, 혼다 신형어코드, 혼다 피트 EV, 렉서스 신형 ES, GS, LS, 링컨 MKZ, 메르세데스 벤츠 SL 클래스, 닛산 신형 알티마, 센트라, 포르쉐 신형 911, 복스터, 싸이언 FR-S(토요타 86), SRT 바이퍼, 스바루 BR-Z, 테슬라 모델S, 토요타 신형 아발론, 신형 프리우스C, 신형 아리스 등이 1차 후보에 포함됐다.

특히 토요타는 경우, 신형 아발론, 아쿠아, 프리우스C, 86, 렉서스 ES, GS, LS 등 무려 7대가 노미네이트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혼다차도 차세대 어코드와 피트 전기차, 여류라 ILX 등 3대가, 닛산은 신형 알티마와 차세대 센트라 등 2대, 스바루가 BR-Z 등이 1차 후보로 선정되는 등 일본차가 초강세를 보였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와 북미국제오토쇼 조직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 후보 3대를 선정할 뒤, 2013년 1월 디트로이트모터쇼장에서 2013 북미 올해의 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 올해의 차에는 현대 아제라, i30 외에 쉼보레 말리부와 스파크, BMW 신형 3시리즈와 신형 ES, 혼다 신형 어코드, 닛산 신형 알티마, 싸이언 FR-S가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조현민 기자

“사장님, 협력사 지원금 받아가세요!”

–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검교정검사 지원사업에 이은 소모성 유류비(방청액, 세척제) 지원사업 첫 시행, 최대 3억 원까지 현금지원 수혜.

– 예년과 같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교정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

– 특히 2009년부터 준비하여 온 소모성 유류인 방청액 및 세척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검교정검사 지원사업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2월 29일에 1차 마감하였고, 신청 협력사가 많아짐에 따라 7월 현재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비용의 40%까지 현금 지원받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금년도 지원유무에 관계없이 2차까지 신청 및 접수된 업체는 내년도 우선 지원대상 업체로 등록됩니다.

한편,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유류인 방청액, 세척제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 또한 4월부터 접수받기 시작하였으며, 총 소모 유류액 10억 원 한도 내 최대 20% ~ 최대 30%를 현금 지원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지원사업은 진행 후 협력사로 직접 현금지원을 하는 만큼 유가 및 원가상승,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협력사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협력사의 검교정 관련 담당자나 유류(방청액, 세척제)사용 담당자는 지원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신청하여 자기 회사가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홈페이지에 있는 유류(방청액, 세척제) 신청서에 기입하여 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문의 :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공식 이메일(E-Mail) kmir@kmir.org 또는 ☎ 1566-9901(전국)

신 차

현대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자동차' 쏘나타의 2013년형 모델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가 출시됐다. 이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정보통신(IT) 기능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좀 더 매끈해지고 좀 더 똑똑해진 쏘나타가 나타난 셈이다.

전면부는 새롭게 디자인한 그릴을 적용,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옆과 뒷부분 역시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인상을 풍긴다. 실내 디자인 또한 한층 개선됐다. 각종 스위치 배열이 조정됐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컨트롤 패널 보드인 센터페시아 역시 세련돼졌다.

각종 첨단 기능도 두루 갖췄다.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에는 차량의 주요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블루링크'가 장착됐다. 특히 주행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삭제, DMB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점이 눈에 띈다.

차 이름은 현대차가 최근 선보이고 있는 '티브 브릴리언트'(Live Brilliant) 캠페인에서 따왔다. "고객들의 삶을 더욱 빛나고 특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명"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CVT 모델의 경우 기본형은 2210만원으로 기존 제품과 같고, 주력모델로 삼는 '스마트'는 15만원 올랐다. 터보 GDI 모델 중 '모던'은 40만원, '프리미엄'은 20만원씩 각각 인상됐다.

오상민 기자

자동차 역사

현대자동차 '그라나다'

현대자동차 그라나다는 1978년 현대자동차와 독일 포드사의 기술제휴로 최고급 승용차를 원하는 수요층을 위해 개발된 유럽 정통 스타일의 대형 고급 승용차이다. 어떠한 주행조건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으며, 차체와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이 뛰어난 안전성을 주는 차였다. 또한 4륜 독립현가장치, 인체공학적인 시트 등으로 훌륭한 승차감이 확보된 승용차였다. 1980년에는 엔진을 4기통으로 줄인 "뉴 그라나다"를 개발, 경제성을 높이는 등 고급차에서도 차종을 다양화 하였다. 1978년 10월~1985년 12월까지 4,743대가 생산되었다.

엔진은 배기량 1,993cc로 수냉식 V6 OHC엔진을 얹었으며



최고출력 102마력(5,700rpm) 최대토크 16.9kgm(3,500rpm) 최고속도 165km/h를 발휘했다.

고 정주영 회장이 가장 아끼던 차였다고 하는데, 1982년 그의 장남 정몽필 씨가 이 차를 타고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비운의 차로 전락했다고 한다.

기아의 푸조604와 대우의 로얄살롱과 함께 그 당시 고급차 시장에서 3파전을 이룬 차량으로 1985년까지 생산되었다. 그라나다를 끝으로 이후 현대는 일본 미쓰비시와 제휴로 그랜저를 생산하였다. 영화 '효자동이발사'에서 정보기관원이 이 차를 타고 등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던 적도 있다.

허영민 기자

자동차 이제 렌트가 아닌 세어링 시대



서울시가 교통량 감축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민간업체와 손잡고 10월부터 '전기차 세어링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카 세어링 서비스'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빌려 쓰는 개념으로, 렌터카와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를 두고 주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전기차 200대가 도입됐다.

시는 세어링 차량 1대당 3대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감축효과가 있어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질 예정이지만 현재 업계의 통상적인 대여

금(시간당 6000원~1만원)보다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LG CNS, 코래일네트웍스 등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하고 이들이 전기차를 살 때 대당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시민이 실시간으로 전기차를 예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과 통합 대여 정보사이트를 만든다. 카 세어링 전용 대여 시스템 구축, 충전시설 설치 등 준비작업은 민간 세어링 업체가 각 사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여위치와 대여방법은 업체가 자율 결정하되, 시는 지역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구로디지털 단지 2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전기차 세어링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대여할 수 있는 차량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대여를 위해서는 면허증 보유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전에 각 사업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가용을 팔거나 폐차한 후 세어링 서비스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 면제,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미영 기자

자동차 상식

자동차 전조등 켜기 운동에 동참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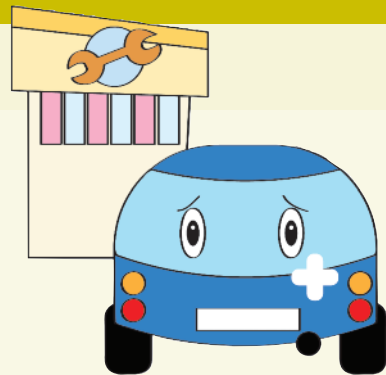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전조등은 어수룩한 저녁때나 안개가 낀 경우에만 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를 보면 무 개념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운전과 정비에 밝다고 하는 개인택시기사들 중 일부 기사들은 전조등 켜고 있는 차에 다가가 비난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접수되고 있다.

오히려 전조등 수명과 배터리 그리고 연료 소비만 부추린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안정성이 급격하게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료가 소비되고 전조등 수명이 준다는 것은 옛날 얘기이다. 요즘은 차량 배터리의 성능이 좋고 전조등 또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낮에 전조등을 켜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렌트시 자기차량손해 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로 집계됐다.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는 20.3%(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윤상혁 기자

오히려 주간 전조등 점등은 상당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 자료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고 운행 시 중앙선 침범사고, 사망자, 부상자가 확연히 감소된다고 한다. 전조등 점등시 반대편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킬 뿐 아니라 브레이크등도 점등되기 때문에 뒷 차의 부주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 시 연간 4,24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주간 전조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별로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유럽 국가들처럼 낮에도 의무적으로 자동차 미등을 켜고 다니라'는 지시가 떨어져 의무적으로 낮에도 미등을 켜고 다닌다고 한다.

김성수 기자

용인시
YONGIN CITY

향유하는 문화예술

참여하는 열린행정

균형있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건강도시

사람중심 교육복지

함께 하기에 더 행복한 용인!

Dream City Yongin!

더 편리한 생활, 더 깨끗한 환경, 더 따뜻한 나눔,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용인!
당신의 꿈이 반짝이는 드림시티 용인에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04 한국자동차신문

(제7호)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정치·사회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자세히 보기

국토해양부가 확정·공고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 계획’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대 전략과 45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안전성 확보

수입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 폐지 및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자동차 국제기준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차내 공기질 관리 및 수입차의 안전 관리를 비롯, 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이륜차·CNG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차 ‘딥롤 가이드라인’을 마련,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도 도입하고, 미래형 자동차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동차 검사제도를 선진화한다.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 도입 및 라벨링(labeling) 의무화 및자동차 부품

안전관리 체계화,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카드제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자동차 토탈이력정보를 통합 제공 등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정비요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선진형 자동차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중고부품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튜닝제도를 활성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작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자동차 부품활용방안을 마련

한다.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개발 등 사업 다각화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한다.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활성화

미래형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및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보너스-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운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동차 정책 발전기반 확립

정기적인 이용실태 조사 등 자동차 조사통계제도를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을 미래지향적 법률체제로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리한다. 자동차 특성화 대학 지정 및 특성화고교에 자동차기술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의무화한다.

김정우 기자

성범죄자,

그들이 사는 집 앞에 신상공개 팻말

사회에서
영구격리 등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등곳길에 실종된 통영 초등학교 여학생 한모양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김점택을 사건 발생 6일 만에 붙잡아 자백을 받아 냈다. 놀랍게도 이 용의자는 인근 마을에서 성범죄 전과자였다.

정부와 국회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 처벌을 강화한다며 이것저것 하는 거 같더니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

2010년 발생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당국의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점택은 2005년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돌맹이로 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였다. 2009년 출소 후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왔으나 사람들은 그저 개망나니로 취급했을 뿐 적극 경계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당국도 그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하지 않았다.

용의자 김 씨는 무려 전과 12범인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전에 저지른 일이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국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 대상은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1년 4월 이후 유죄판결 받은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가 12범인데도 성범죄자로 공개가 되지 않고 멀쩡히 이웃에서 지내고 있으니 우리나라 법이 정말로 우습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전과 12범이나 되는 흉악범이 강간 시도 및 폭행을 하고도 4년 밖에 복역하지 않으니 도대체 형량 부과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럽다. 법을 만드는 분들은 성범죄자들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로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의 왜곡 때문에 대부분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범죄자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또 언제 제2, 제3의 통영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 아니, 벌써 이번 사건이 수년 전부터 우려했던 제2, 제3의 사건인 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철저히 감시·관리하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성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 또한 강력하게 바꾸어야 한다. 경계, 문화만 선진국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치·법률도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윤환 기자

안철수, '안철수의 생각' 출간. 대선출마 수순 밟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저서를 통해 사상 대선출마 입장을 내비쳤다. 안 원장은 19일 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지도'에서 "도전은 힘이 들 뿐 무서운 것이 아니다"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대선 참여 여부를 직접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치와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대선출마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은 이 책에서 "지난 4·11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살아오면서 진로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때마다 다 비교적 '짧고 깊은 고민'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 정치 참여 문제는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동안의 결정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 삶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 문제는 국가 사회에 대해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원장은 "내게 기대를 거는 분들이 진정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그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내가 그럴 만한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많은 분들께 우리 사회의 여러 과제와 현안에 대한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에 여당은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확실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치적 간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홍보에만 급급한 지금의 경선을 재정립할 기회"라며 안철수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안철수 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많은 지식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젊은 층의 인기가 두터운 것은 사실이나 솔직히 그는 정치적 경력이 전혀 없는 학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수십 년 동안 준비된 정치인도 여러 모순점들이 나타나 혼란이 생긴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여러 대통령들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안 원장은 상당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안 원장의 입지는 빨라도 9월 말 정도는 되어야 그 윤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석 기자

北, 김정은 '원수' 추대.

예고된 수순이나 아니냐 내부 불안을 달기 위한 선전술이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동화국 원수' 호칭이 수여됐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18일 낮 12시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지난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대장 칭호를 받았다.

북한군의 장성계급은 소장→중장→상장→대장→차수→원수→대원수로 구분된다. 김정은은 대장에서 '차수' 계급을 건너뛰고 원수로 등극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격적인 승진이다.

북한 내부에서 군 계급은 지도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기제로 사용된다. 대부분 노동당 요직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은 장성급 계급을 겸하고 있다. 군과는 별로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대장 칭호를 받은 것이 그 비근한 예이다. 북한 주민들의 '영원한 최고 영도자'로 추앙받는 김일성 주석은 39살이던 1953년 2월 원수 호칭을 받았고 사망하기 2년 전인 1992년 대원수에 추대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50살이던 1992년 원수 호칭을 받고 사후에 대원수 호칭을 받았다.

이번에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가 수여된 것은 북한의 관례로 볼 때 예고된 수순이다. 김정일도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은 1992년 4월에 원수 칭호를 받았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0일 군의 최고 자리인 최고사령관



에 추대됐으나 군계급은 대장에 불과했다. 특히 자신이 지도를 해야 하는 차수들과의 관계가 좀 애매했던 게 사실이다. 차수가 대장보다 한 계급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원수 승진으로 계급상 역전 현상을 해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원수로 승격한 것은 북한 내에서 기반 굳히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가 군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승격이 '선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 즉 내부적 불안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전권(全權)을 장악했다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선전하는 게 유리하다. 내부적인 체제안정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국가의 최고지도자끼리 만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때에도 상대방에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권력 기반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전술에 목을 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지도자의 지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거칠고 과장된 선전술을 가동시켜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 루아침에 총참모장의 직위를 박탈한 것은 불안의 징후가 표출된 사례이며, 이 사건 직후 이뤄진 원수 승격 발표 역시 불안한 내부 사정을 달기 위한 포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기철 기자

제12회 세계지식재산권의 날(4.26) 기념광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저작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남의 것을 베끼면 공작공작, 내가 스스로 하면 뽕뽕뽕뽕

2010년 저작권 표어 공모전 수상작(송승연, 13세)



韓 자동차 부품사, 日 수출 물류비 준다

한 중 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생각하고 운송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과도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서 리성린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켄 오쿠다 일본 국토교통성 부대신과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12개 실천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부속서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하반기부터 양국 항만에서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를 통해 선박에 실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26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피견인 트레일러를 이용해 일본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도 상호주행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트랙터까지 상호주행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0년 인천항~위해항을 시작으로 2012년 6월말 현재 한국 3개항(인천, 평택, 군산)과 중국 6개항(위해, 청도, 일조, 용안, 석도, 연태) 간 259대의 피견인 트레일러를 통해 상호주행을 시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로 인해 상하역 단계가 축소돼 화물운송 시간을 4시간 단축시키고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50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을 올리고 내릴 때 반점장치로 사용되는 팔레트를 회수할 때 부과되는 면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주택에 이어 상업용 빌딩도 ‘불황’



부동산 침체 기류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에 이어 상업용 빌딩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분기 오피스 빌딩과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1.73%, 1.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각각 0.05%p, 0.07%p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3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상승하던 흐름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에 있는 오피스빌딩 1000동과 매장용빌딩 2000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빌딩의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자산가격변동액/기초자산액) 역시 투자심리 위축으로 떨어졌다. 오피스빌딩(0.33%)은 전분기 대비 0.05%p, 매장용빌딩(0.29%)은 전분기 대비 0.07%p 각각 하락했다.

빌딩 공실률도 높아졌다. 오피스 빌딩은 평균 8.4%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했다.

매장용 빌딩도 평균 9.3%로 0.1%p 올랐다. 공실률은 근래 몇 년간 호전되는 상황이었다.

값이 떨어져 경매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강동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주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빌딩 시장마저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업용빌딩 시장도 실물경기 침체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침체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양상호 기자

시중은행 ‘CD금리 조작’ 의혹



‘CD게이트’가 터졌다.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 금리 선정에 참여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CD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00조 원에 육박하는 대출이 CD연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0.1%만 높여잡아도 은행들이 연간 300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이 자신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CD 금리가 ‘실질상 조작’되고 있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답답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업체는 100%과징금이 면제된다는 ‘리니언시’를 이용해 한 금융업체가 답답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규정을 바꾸면서 은행이 CD를 발행할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CD 발행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CD 발행 물량의 절대량 자체가 시중금리의 기준으로 삼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식물금리’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100조 원에 달하던 CD 발행잔액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더니 올 6월 말 현재 27조 원으로 급감했다. 2010년까지 매달 9조~10조 원씩 거래됐던 CD는 현재 2조 원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시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CD금리는 다른 시중금리는 하락했는데, 지난 3개월간 3.54%에서 변동이 없었고, 지난 1년간에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통화안정증권의 금리는 같은 기간 3.38%에서 3.22%로 0.16%포인트나 떨어졌다.

금융업계에서는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금융사가 증권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은행과 ‘갑과 을’의 관계인 증권사가 ‘실질상의 조작 금리’를 제시해 오다가 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식물금리 만든 건 당국” 비판도

일각에서는 이처럼 CD 금리를 ‘식물금리’로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금융당국이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만들 대책이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후 한 번도 추가 회의도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가 금융당국을 무시하고 CD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고한석 기자

개인 신용등급, 평가사마다 다르니 주의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등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두 곳이다. 신용등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일인에 대해 신용평가사마다 등급이 다르게 산출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신용평가사마다 등급이 왜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신용사마다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는 평가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 평가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체 등 상환이력 정보반영 비율의 경우 나이스는 40%에 달하는 반면 KCB는 25%만 반영한다. 대출액 신용카드이용액 등 현재 부채 수준 비중은 나이스는 23%, KCB는 35%에 달한다.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상품별 계좌잔수 활용률은 25.8%지만 KCB는 24%다. 이 때문에 동일인이라 해도 업체의 기준에 따라 점수가 다른 것이다.

은행은 또 신용평가사가 건네준 등급과 정보를 자체 평점시스템으로 한 번 더 분류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또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회한 평가 기관에 따라 5등급도 되었다가 7등급도 되었다가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신용등급은 현대인의 금융상태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이런 중요한 척도가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평가기관의 산출방식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두 평가기관을 일원화 하든지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수현 기자

매일 쓰는 공산품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료품의 유통기한은 정말 꼼꼼히 따진다.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절대 사지 않으며 설령 구매했다 하더라도 기를 쓰고 따져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만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의 유통기한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것이다. 공산품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성분이 변질돼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칫솔’은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치아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데다가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칫솔모가 벌어지는 즉시 바꿔주는 것이 좋고,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매일 베고 자는 ‘베개’도 수명이 있다. 겉으로 멀쩡해 보

여도 오래되면 베개 속이 뭉치고 세균이 번식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베갯잇 역시 자주 세탁하고 6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향수’의 유통기한은 2년인데, 2년이 넘은 향수는 향이 줄어들거나 향이 변질돼 악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미진 기자

깨끗한 바다가 희망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창립 4돌을 맞이하여 더 깨끗한 바다, 더 푸른 희망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인천 지월도 해상 폭발 화물선 두라3호 기름 아적(12.01.16)



태안 해역 수질 조사(11.10.19)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갯벌 생태계 조사(11.08.28)



태풍 '무미파'로 인한 마산항 해양쓰레기 수거(11.07.14)

www.koem.or.kr

KOEM 해양환경관리공단

여름 건강을 지키는 옷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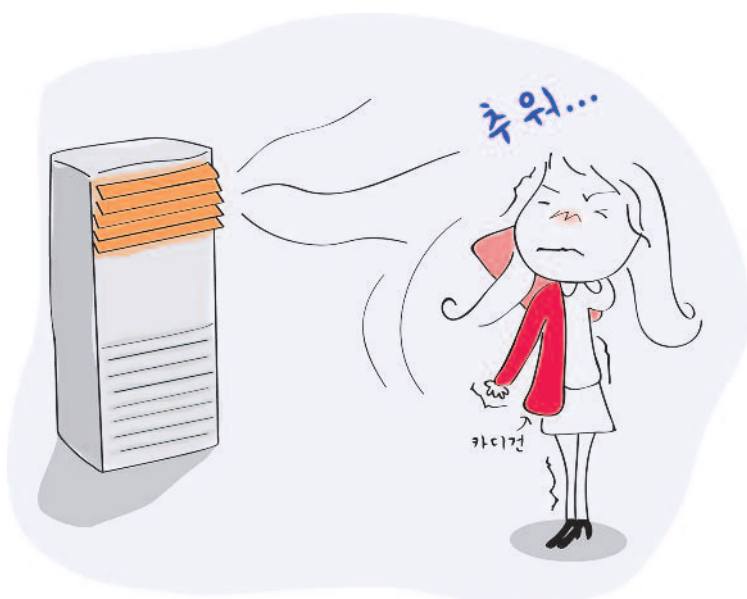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옷을 잘 갖추어 입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듯한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으니 울여름 폭염을 수 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그렇다고 무조건 벗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옷가지들 줄이고 잘 골라 건강하게 입어야 한다. 옷가지 선택만 잘해도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여름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무더위 속 일상병 막는 옷차림

30℃를 넘나드는 한여름의 높은 기온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적이다. 뜨겁고 강렬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때 일상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는 땀을 많이 흘린 뒤 몸속 염분이나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일상병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땀이 넓은 모자를 써서 햇볕을 막고, 되도록이면 얇은 소재의 긴소매 옷을 입어 맨살이 그대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냉방병 막는 여벌, 카디건

여름엔 개도 감기 안 걸린다는 옛말이 있지만 곳곳에 에어컨



권을 구비하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다. 냉방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5℃를 넘으면 우리 몸이 그 차이에 적응하지 못해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냉방병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민소매, 미니스커트 등으로 남성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성이 냉방병에 더 취약한 편인데 이럴 땐 노출 있는 옷을 피하거나 얇은 카디건을 입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된다.

지속적으로 냉방되는 실내에서는 여벌 셔츠나 카디건을 꼭 준비하도록 하자.

무조건 짧은 옷은 위험!

초 미니스커트, 핫팬츠 등 하의가 아주 짧은 옷차림이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여름 물 만난 이 '하의실종' 패션으로 여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으니 주의해야 한다. 냉방 중인 실내 찬 기온에 하체가 장시간 노출되면 하체에 냉기가 들어 아랫배가 차가워질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자궁질환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찬 기온에 의해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내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특히 하체가 차가워지면 상대적으로 상체에 열이 몰리는데 이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탈모 등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이 있는 이들은 민소매 의류도 주의해서 입어야 한다. 셔츠라기처럼 살이 접히는 부분의 땀이 흡수되지 못하고 고이거나 피부를 타고 흐르면 피부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의 경우 흐르는 땀을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땀구멍을 막아 찰피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 무조건 짧은 옷을 입기보다는 인견, 리넨, 모시, 리플, 아사면 같은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달고 쓴 인류 최대의 음료수, 커피(Coffee)

'스타벅스 지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인의 생활에 커피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 저가의 자판기 커피부터 고가의 커피까지 남녀노소 모두 커피를 접하기 쉬워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커피의 원두는 커피나무의 열매로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의 좁은 준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이다. 코페아 종에는 25개의 주요 품종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커피는 코페아 아라비카와 코페아 카네포라(로부스타) 두 원종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가볍게 즐기는 인스턴트 커피나 캔커피 등에 사용되는 것은 환경에 까다롭지 않은 로부스타 종이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성장 조건이 까다로운 아라비카 종은 원두커피,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용으로 사용된다.

커피는 동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어 아라비아의 이슬람에서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다. 각 세기에 따라 커피를 마셨던 이유는 다양한데 16~17세기에는 약제로서 치료나 효능에 효과를 보기 위해 음용되기 시작한 커피가 18세기에는 유럽인들이 지성을 자극하는 음료로 숭배하며 카페 라이프를 창출해냈다. 산업 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에 와서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원으로서 광범위하게 음용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황제이고 상당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한다. 고종은 1885년 파천하고 있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 맛을 보고, 궁으로 돌아온 후에도 커피를 즐겨마셨다고 한다. 고종황제가 즐겼던 커피는 원두를 갈아 물에 타서 설탕과 섞은 형태로 오늘날의 드립커피의 전단계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커피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음료이다. 커피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며 세간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최지는 기자



1977년 11월 파나마에서 한국인 최초 두 체급을 석권한 복싱 챔피언이 탄생했다.

한국 복싱계 전설인 홍수환은 주니어페더급 타이틀결정전에서 엑토르 카라스키아를 '4전 5기' 끝에 KO승을 얻어냈다.

두 선수는 체력뿐만이 아니라 나이차이도 컸다. 168cm의 홍수환은 173cm의 카라스키아보다 10살이나 많은 전성기를 지난 복서였지만 빠른 풋워크와 다양한 펀치 테크닉을 능숙하게 구사하였다.

홍수환은 이미 WBA(세계권투협회)밴터급 챔피언으로 정상에 선적이 있지만, 카라스키아는 이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다.

4전 5기의 신화

카라스키아는 프로권투 세계에 뛰어든 지 2년도 안되어 세계 챔피언 결승에 올라온, 11전 11승 그것도 모두 KO승을 기록한 상당히 어려운 상대였다.

.. 경기 2회 들어 카라스키아의 가공할 펀치인 짧은 레프트연타를 얼굴에 맞고 홍수환은 첫 번째 완벽한 다운을 당하였다. 누가 봐도 '어렵겠다,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펀치였다. 곧이어 2라운드에서 모두 4번이나 다운되었다. 패색이 짙었다. 우리나라 중계해설사까지도 "역부족입니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온 국민이 빌 정도였다.

이전에는 원래 1라운드에서 3회 다운하면 KO패로 판정되었지만, 이번 타이틀전에서부터는 무제한 다운제가 도입된 것이 홍수환에게 계속적인 다운의 행진을 불러온 안타까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운으로 되었다.

홍수환은 3회 들어 4번의 연속 다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상대의 강펀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홍수환은 신들린 듯 카라스키아를 두들겼

다. 그리고 KO까지 몰고 갔다.

홍수환의 포기하지 않고 굴뚝 줄 모르는 승부혼이 역전KO승을 이루어낸 것이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의 전화통화 한마디에 어려웠던 77년도 겨울, 거리에선 국민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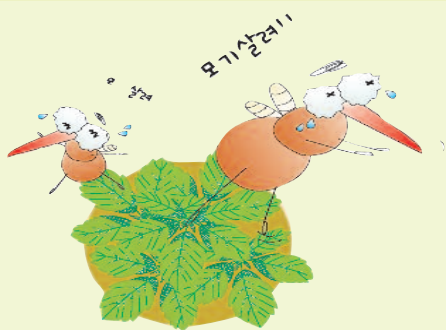
한국복싱 최초 2체급 석권을 달성한 홍수환은 카라스키아와 1999년 KBS '도전! 지구탐험대'에서 21년 만에 재회했다. 홍수환은 당시 파나마의 여당 지구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라스키아와의 명승부를 회상하기도 했다.

최근, 홍수환이 한국복싱을 위해 한국권투위원회(KBC)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총회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프로복서가 회장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권투연맹을 배출해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제 2의 홍수환이 탄생하길 또 다시 기대한다.

최선명 기자



여름 불청객 모기, 이젠 자연의 힘으로 퇴치하자!

무더운 여름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더위뿐만이 아니다, 여름밤 최고의 불청객이 항상 내 집안에 상주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모기이다. 자기 전에 샤워도 해 보고 방충망도 설치해 보지만 어느새 모기는 내 피를 빨아먹고 도망치고 있다.

스프레이, 기피제 등 모기퇴치용품이 인체에 해로운물과까 걱정이거나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 모기를 퇴치하는 식물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모기는 페퍼민트, 박하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싫어하는데, 이런 향을

내뿜는 대표적인 식물로 야채향과 로즈제라늄이 있다.

야채향은 가지과의 상과목으로 낮에는 꽃이 옅으며 있지만 밤이 되면 꽃이 활짝 열려 은은한 향을 발산한다. 관리를 잘 하면 6~10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데, 밤에만 꽃이 피며 이 꽃향기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다. 베란다에 놓아두어도 방 안까지 향이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멀리 퍼진다. 실제 야채향은 한 방에서 놀라운 모기 퇴치 효과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로즈제라늄 역시 모기 퇴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문초'라 불린다. 장미향과 허브향이 동시에 나는 특이한 허브로, 향긋한 향기를 공급해줄 뿐 아니라 미란도 아름다워 식물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이 로즈제라늄에는 '시트로넬롤'이라는 오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을 모기들이 싫어한다고 한다.

이번 여름엔 친환경적으로 모기도 쫓고 좋은 향기에 아름다운 풍경까지 제공하는 모기퇴치 식물을 키워보는 것이 어떨까?

특송의 달인!!

우체국 EMS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여행정보



군산에는 선유도(仙遊島)와 신시도, 장지도, 아미도, 무녀도 등 10개가 넘는 섬이 있다. 그 중 신선이 노닌다는 선유도가 가장 유명하다. 천혜의 전경을 가진 크고 작은 63개의 고군산군도 중에서도 선유도가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 선유도는 두 신선이 마주보고 바둑을 두고 있는 모

천혜의 해상공원, 선유도

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푸른 바닷바람과 함께하는 군산 섬 트레킹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다. 선유도로 가는 배에서 볼 수 있는 고군산열도의 경관은 환상적이다. 선유도는 무녀도, 장지도와 해상다리인 선유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배 뿐만 아니라 2010년 완공된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섬과 섬이 연결되어 있어 차로도 갈 수 있다.

선유도에서는 서해의 특징인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선유도 갯벌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 지형형태로 인한 다양한 갯벌이 있다는 것이다.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고 썰물 때면 야간갯벌체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수욕장 부근에 위치한 모래갯벌에서 손쉽게 조개도 잡을 수 있다.

군산 선유도는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해상공원이다. 많은 경관이 있지만 여러 섬과 기암이 모여 있는 군산만의 해안 산책로에서 여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안지훈 기자

다크 나이트 라이즈 (The Dark Knight Rises, 2012)

장르 액션, 범죄, 드라마, 스릴러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출연 크리스찬 베일, 모건 프리먼, 게리 올드만



‘배트맨’ vs. ‘베인’,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
배트맨이 조커와의 대결을 끝으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춘 8년 후, 평화가 지속되던 Gotham의 파멸을 예고하며 최강의 적 베인이 등장한다.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볼 것인가, 정의의 수호자로 나설 것인가. 배트맨은 승패를 알 수 없는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려 한다.

다크 나이트 신화의 전설이 끝난다.

다크 나이트 신화의 최종편이자 마지막 전설이 될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공개하는 모든 것이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열린 첫 시사회에서 이미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그 관심은 더욱 뜨겁다. 본 포스터와 캐릭터 포스터 역시 해외에서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그 어떤 블록버스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장미와 철학적인 주제, 그에 버금가는 초대형 스케일까지 마지막 전설로 손색없는 영화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7월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매출은 85.5%(오후 6시 기준)로 역대 최대 사전 예매량, 올해 개봉영화 중 최고 예매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앞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개봉 전날 기록한 83.4%를 뛰어넘는 수치로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대한 국내 영화 팬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아바타'가 가지고 있던 역대 최고 흥행 수익마저 뛰어넘는 것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초대형 스케일, 거장의 귀환
블록버스터의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크리스찬 베일을 비롯해 게리 올드만, 마이클 케인 등 원년 멤버들과 톰 하디, 앤 해서웨이, 조셉 고든-레빗, 마리오우 피라아르 등 신진 멤버의 조합으로 정쟁한 출연진도 갖췄다.

전체 촬영분 중 약 한 시간 가량을 아이맥스(IMAX) 카메라로 촬영해 고공 비행기 폭파 탈출 장면과 현수교들과 미식축구 경기장의 붕괴, Gotham도심에서의 집단 격투 등 초대형 스케일을 선보인다. 또한 실측 모형으로 제작된 배트맨의 비행이동수단인 '더 배트' 등을 비롯해 최첨단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한다. 덕분에 전 세계 팬들이 상상을 하는 것, 그 이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전 세계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영화이며 또한 가장 열광시킬 단 하나의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2012년 7월 19일 일반 상영 버전과 3D가 아닌 2D 아이맥스 버전으로 개봉한다.

韓國自動車新聞(KOREA MOTOR NEWSPAPER)
發行人:洪明熙/編輯人:洪明熙/印刷人:신진사전인쇄/登錄番號:沙上라2011-1
代表番號:1566-9901(案內)/Internet住所:www.kmn.pe.kr/開辦:月間,有價紙
住所:釜山廣域市 沙上區 毛羅洞 728-10番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 여름밤 빛의 향연 ‘포항국제불빛축제’



우리나라엔 다양한 지역축제들이 연중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펼쳐지는 축제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축제는 아마도 빛을 주제로 한 축제가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름 밤 바다를 화려한 빛의 꽃으로 수놓는 축제가 있으니 바로 포항에서 열리는 ‘포항국제불빛축제’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는 ‘Light Now 이제는 빛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7월 27일(금)에 전야행사를 시작으로 8월 5일(일)까지 펼쳐지며 형산강 해수욕장과 포항 북부 해수욕장 두 군데로 나누어져 축제가 진행된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불꽃놀이뿐만이 아니라 뮤직 불꽃쇼, 해외교류도시 문화행사, 행복 나눔 감사콘서트, 영일만 대학 열전, 불빛 커피댄스 경연대회, 불빛 탐 밴드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메인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불꽃놀이 행사는 7월 28일 토요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열리며 이 행사에는 국내 불꽃팀 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중국, 이탈리아 3개국도 참여하여 국제불꽃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올해의 축제의 테마는 「일어나는 빛」, 「화산되는 빛」, 「열광으로 수놓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테마에 맞도록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외는 포항시 축제 위원회나 포스코(054-220-1014)로 문의하면 된다.

한기훈 기자

암컷이었다가, 수컷이었다가!



물고기 중 일부는 환경이나 생리적인 조건에 따라 성전환(Transsexualism)을 한다. 그 종류만 총 어류 2만종 중 400여 종에 이르며 스스로 성을 바꿔 변하는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한다. 태어나면서 성별이 정해지는 포유류와 달리 이 어류들은 성장하면서 수컷에서 암컷으로,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별을 전환한다.

성전환하는 어류의 대부분은 새끼를 적게 낳는 종이 많다.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방법이 바로 성전환인 것이다. 암컷이 다른 어류에 의해 죽더라도 남은 수컷이 생존을 위한 성전환을 통해

번식을 행하는 것이다.

성전환 어류는 보통 난소와 정소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정소와 난소 중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느냐에 따라 암컷, 수컷의 결정이 지어진다. 성장이 진행되면서 둘 중 한 쪽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감성돔, 양태, 매통이 등은 수컷으로 태어나 암컷으로 전환하며 금강바리, 황돔, 드렁허리 등은 태어났을 때 암컷이나 성장하면서 일부가 수컷으로 변한다. 감성돔은 수컷으로 태어나 두세살 암수 한 몸이 되었다가 대어섯 살 즈음엔 거의 암컷으로 바뀌며 이를 프로탄드라이(proandry)패턴이라고 한다. 반대로 금강바리는 암컷으로 태어나 무리지어 살다가 무리에서 수컷이 사라지면 암컷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물고기가 수컷으로 변한다. 이는 프로토기니(protoyny) 패턴이라고 한다.

진화론적으로 매우 유리한 어류의 성전환은 어류가 ‘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에서 나와 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생식세포의 건조를 막아야하고 물에서보다 더 견고하게 알을 감싸야했다. 결국 방수껍질 역할을 하는 자궁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 외에도 가장 많이 알려진 성전환 산호고기인 라이어 테일(Lyretail), 스워드 테일(Swordtail) 등이 있다.

한여름의 필수품?



지나친 냉방으로 추위에 떨고 계신건 아니니까?

적정온도(26~28℃)에서 벗어난 에어컨 사용은 냉방병 유발은 물론, 에너지과소비에 따른 여름철 전력수급 대란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이제 긴소매 옷에게도 여름휴가를 주세요!

7~8월 전기절약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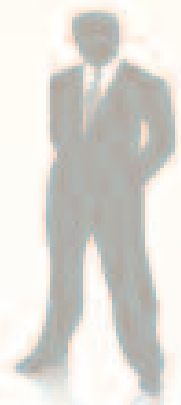
에너지관리공단 그린에너지매일리(www.gogef.kr) 홈페이지 참조

여름철 전기절약 지혜~ 에어컨 '약'으로 선풍기와 함께, 2주에 한번씩 에어컨 필터 청소, 외출 10분전 에어컨 미리 끄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사용후 멀티탭 스위치 끄기

2012년 5월 15일

한국자동차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KMN



한국자동차신문(KMN)은 2011년 8월 10일 설립된 신문사로서,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부설기관입니다.

모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영리 신문사로, 수익금 전액을 신문간행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우리 업계가 하나로 되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현재 국내 5개 완성차 및 8,500여 자동차부품협력사와 종사자 약 80만 명 및 50만명 이상의 자동차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완성차 및 부품협력사의 동향, 자동차 신기술 정보, 대정부 정책 제언 등의 소식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기사는 물론 생활의 팁, 여행지, 운동정보, 역사이야기 등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우리 자동차업계를 위한 신문입니다. 항상 자동차업계만을 생각하고 자동차업계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자동차업계를 든든히 지원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알차고 진실한 내용을 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자동차업계를 발전시키는 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업계 소통과 소식 그리고 대외 및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한 우리 업계의 한 목소리와 자동차업계 현장의 기술전문기자들을 통한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
KOREA MOTOR NEWSPAPER